홈페이지QR

CJ CHEILJEDANG FEED


# 농축환경신문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제1260호(주간) www.nonguptimes.com 전화 (02) 582-4016 이메일 press@nonguptimes.com


최대성장을 통한 출하일령 단축 농협사료 G맥스

2 농산업 수출길 넓히고 우수품종 키운다 | 3 한·베트남 검역협상 타결 성과… 닭 가공품 첫 수출 | 9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막는 '국가방제벨트' 조성 추진 | 10 전북연구원, 생애영농 위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제안

## 무기질비료값 5.1% 인하… 농가 부담 던다

### 비료 판매가 평균 5.1% 인하… 20kg 포대당 농가 부담 1만6620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무기질비료 판매가격 인하 이후에도 가격 보조를 이어가 농가의 비료 구입 부담을 줄인다.

농식품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과 환율 하락 추세에 따라 농협이 지난 20일부터 비료 판매가격을 평균 5.1% 인하했으며, 기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무기질비료 가격은 2021년 하반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크게 오른 뒤 농가 경영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2022년부터 가격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요소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에 대응해 추가 경정예산 115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본예산 156억원을 포함해 총 271억원의 국비를 가격 인상분 지원에 투입하고 있다. 재원은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가격 인하로 무기질비료 20kg 포대당 평균 판매가격은 기존 2만860원에서 1만9800원으로 1060원 낮아졌다.

여기에 보조금 3180원을 적용하면 농가의 실제 부담액은 1만6620원 수준이다.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요소 단비는 판매가격이 2만6600원에서 2만2900원으로 3700원 인하됐다. 보조금 5650원을 적용하면 농가 부담액은 1만7250원으로 줄어든다.

비료 가격 인하 폭과 실제 부담액은 제품별 원자재 함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가격보조 사업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비료 수급 안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비료 가격 인하와 가격보조 지원이 농가의 비료 구입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료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농가에 비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농식품부 전경

## 농지은행 임대수탁 절차 간소화한다

###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한 곳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21일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한다. 종이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고 신청서 작성 시간을 줄이는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농지은행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농지를 임대수탁하려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공공마이데이터로 7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부등본도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다. 개편 이후에는 서명 한 번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등기부등본은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해 이용자가 종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농지은행 이용자 10명 중 4명 이상이 60대 이상인 점을 고려해 고령 농업인의 신청 부담을 줄이는 데도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정보가 서식에 자동 입력되도록 시스템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단축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임대수탁 계약 이후 등록 정보를 변경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농지임대수탁 신청과 함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존처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홍보물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나온 임대수탁 이용 불편 의견을 반영해 서류를 줄이고 절차를 한 곳으로 모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지 임대차 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를 개선했다"며 "현장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농지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농협, 농업인 영농비 85억원 절감

### 218개 품목 판매 기준가격 평균 5.1% 인하

농협(회장 강호동)은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세와 환율 하락 추세를 반영해 20일부터 무기질비료 농업인 판매 기준가격을 전격적으로 평균 5.1% 인하한다.

농업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소비료는 포대당 판매 기준가격이 2만 6,600원에서 2만 2,900원으로 13.9% 인하되며, 21복비(21-17-17)는 2만 4,100원에서 2만 3,100원으로 4.1% 낮아지는 등 총 218개 품목이 인하대상이다.

농협은 이번 가격 인하로 약 85억원의 영농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4분기 공급 예정 물량 16만 톤 기준) 여기에 무기질비료 보조사업 지원분까지 반영하면 농업인의 실제 구입 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인하는 농업인 영농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농협은 정부와 함께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자재 가격안정과 영농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 지난 2월 중동전쟁으로 중동산 요소 수입이 중단되자 원자재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모내기철까지 약 100일간 비료 가격을 동결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했다. 앞으로도 원자재 가격 동향에 맞춘 탄력적인 가격 조정과 보조사업 지원 등을 통해 영농비 부담을 낮춰 나갈 계획이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 농진청, 농산물 품질정보 통합한 '품질백서' 시범 운영

### 사과·참외·양파 품질 데이터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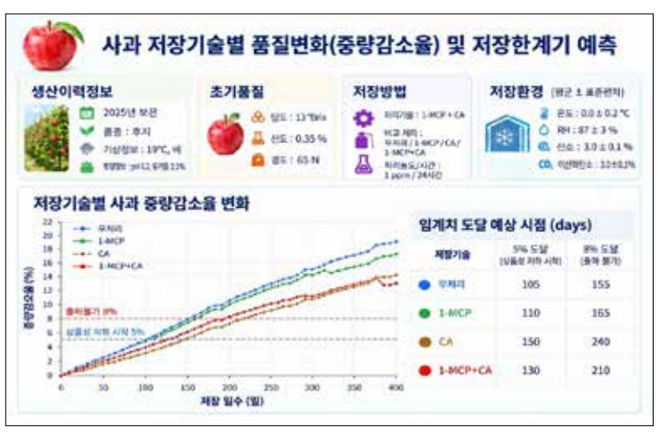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이 농산물의 수확 후 품질 정보를 통합한 웹 기반 '품질백서'를 구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저장 방법과 환경에 따른 품질 변화를 데이터로 제공해 산지유통센터와 농가의 저장·출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온라인 도매 거래 확대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보급으로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객관적인 품질 정보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품질 기준이 연구보고서마다 다르고, 재배 이력과 저장 중 품질 변화 정보도 연계되지 않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품질백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지역·품목·품종별 재배 환경과 전처리 방법, 저장 방식 및 환경에 따른 품질 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적용 대상은 사과·참외·양파 등 3개 품목이다.




▲농진청 제공

사과는 실제 섭취 부위의 당도와 유사한 대표 측정 부위를 선정해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 저장 기술에 따라 상품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무게 감소율 5%와 8% 시점도 제시해 출하 시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참외는 열매가 열린 순서인 화방에 따라 달라지는 색상 특성을 반영해 껍질의 밝기와 색상 기준을 구분했다.

양파는 예비 건조(큐어링) 처리에 따른 중량 감소율과 싹 발생률, 부패율 데이터를 시각화했다. 농촌진흥청은 예비 건조 후 0도에서 7개월간 저장할 경우 중량 감소율을 54.3%, 싹 발생률을 55.1%, 부패율을 66.3%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은 품질백서가 산지유통센터와 유통업계, 농가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돕고 스마트 산지유통센터의 품질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